

다니엘 48 강

다니엘서 오늘 끝이 납니다. 12 장 11 절부터 보겠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될것이니라.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됐다.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후삼년 반이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제를 못드리게 한다. 지어진 성전에서 이제 희생제를 드리죠? 그런데 그걸 못드리게 하고 자기가 앉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러 내려 가지도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 큰 재앙이 내려 올 것이다.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가 7 절에서 봤지만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거죠. 11 장 31 절에 가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이복에 김일성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알수가 있죠? 자기 동상을 세워 거기 절하게 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거기서 다 절한대요. 일단 가면 다 절한대요. 극소수만이 절을 안한다고 들었어요. 8 장 11 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들에게까지 높였고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그 자가 나타나기 전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 분명히 일어날 것은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이 재건이 되니까 환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천년왕국에서도 드리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죠? 지금 이미 성전 지을 것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 성전 앞에 마주 보고 세울려고 이미 조감도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재도 이미 다 공급받았다고 하죠? 언제 이것이 시작될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희생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먼저 시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에 즈음해서 구약의 율법이 회복되리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재건 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망은 그겁니다. 이슬람의 성전이 있는 템플 마운틴 황금돔 그 자리가 바로 옛날의 솔로몬 성전 자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테러를 당하고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 율법시대 처럼 이런 것이 시작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바로 우리의 휴거와 관련이 있고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엄청난 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다 주선을 해요. 짐승의 표도 거짓선지자가 다 주선을 해가지고 받으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아침하면서 돕는 일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 8장 12 절에도 나오죠?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졌다. 마음대로 행하고 번성한다. 대환란 때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번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 편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번성할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행악자라 했어요.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기 땅을 지구 the earth 라고 했어요. **[잠시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를 할 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혼동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일이 될 것이니라.]** 후 삼년 반이 일천이백육십 일인데 11 절에 일천이백구십 일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 1260 일 지나고 30 일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12 절 보니까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1260 일에서 75 일이 더 걸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2300 일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한번 8 장 13,14 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도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천 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천 삼백일이라 하면 1260 일이 지나고 1040 일이 더 경과한 날입니다. 성소가 깨끗해진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더럽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를 불못에 던진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마귀는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던져넣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지는데 1040 일이 더 걸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알수가 없죠? 자 그리고 30 일 후냐? 45 일 더 지난 후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2300 일이라는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과정일 것이다.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에스겔서를 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오서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9 장 8 절을 보면 다 연결이 되죠? **[보라, 그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이 날이 내가 말했던 그 날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날이나 그 일이란 것은 곡과 마곡이, 온 민족들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님께 의해서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쓰러지는 대환란의 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쓰러지는 대환란의 끝을 말하고 이제 9 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에 불을 놓아 태우리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칠 년간 태우리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말타고 왔죠? 그런데 주님께 의해서 완전히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가 일만이천 스타디온을, 말 고삐까지 흐를 정도로 한국으로 말하면 낙동강 정도 된대요. 낙동강 7백리라고 그러죠? 옛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가지고 피바다가 된적이 있죠? 그러니 이 무기를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7년간 태운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역의 군대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전쟁이 끝나고 무기를 불태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뿐만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 쓰러져 있잖아요? 옛날 노아 때는 하늘에 있는 깊음이 다 터져서 땅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 압력때문에 전부 땅속으로 들어 갔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할거 없이 싹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39 장 13 절 가보면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 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을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그들로 그 땅을 거쳐가면서 지면에 남은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깨끗케 하리니 일곱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때까지 두리라.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깨끗케 하리라.]** 깨끗케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연관 시켜서 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 장 17, 18, 19 절 보세요.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것 달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숫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이 그 날 이후부터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님이 오시면 잠깐 동안 싹 죽임을 당하고 그때 주님이 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독수리.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욥기에도 보면 나와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다 예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이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욕기에 나온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똥단지 같이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연관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훑어봐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바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자세히 공부할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말씀을 깨달을 때고 말씀을 깨달아서 앞으로 될 일들을 훤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게 뭔가하면 앞으로 될 일 휴거와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런 것들. 이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는게 뭔가하면 그것들을 얘기하면 사단이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둬나지 못해서 그런 말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견디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거예요. 요즘에 뭐 목사들이 개그맨이 되지 않으면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예요. 개그맨이 뭐해요? 허탄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게 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데 옛날에 내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계속 노래만 하더라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래요. 아 신나게 노래했는데 남는게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노래만 부르다가 가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구요. 저도 그땐 잘 몰랐죠. 그렇게 하는건 줄 알았어요. 자 13 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쉴 것임이라.]** 다니엘은 90 이 넘어서 거의 백살이 다 되었을 거예요. 틴에이저때 가가지고 70 년 포로 생활하고 또 이렇게 날이 지났으니까 90 을 훨씬 넘긴 나이죠. 타향살이를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한가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큰 제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고위 공직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사자 굴에도 들어갔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신뢰를 보여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미래의 역사 전반에 걸친,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요? 바벨론 때부터

적그리스도때까지가 이방인의 때거든요. 끝난걸 다 보여줬죠? 그래서 기록한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리란게 뭐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교리입니다. 우리 구원 교리도 마찬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아닙니까?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교리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역사 전반에 걸친 것을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을 높여 주셨죠? 누구에게 높여 주셨습니까? 세상 임금들에게요. 그는 마지막으로 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만나뵙고 그분의 음성까지 직접 듣는 특권까지 받았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때까지 아주 먼 훗날의 얘기니까 2 천 몇백 년 후의 일이니까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이제 안식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살아 있을 때 오시리라 확신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고 모든 주신 말씀들을 받아야 되요. 이거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손에 들린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우린 전체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다 받아 가지고 선포해야 되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걸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안받는 거예요.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십여년 전에 할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도나도 요한계시록 증거한다고 그래요. 책도 쓰고 그러더라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니까 또 서로들 집회 한다 그러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그럴 때 해야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늦게 오셔서 육신이 죽게되면 그때가서 쉬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한 유언이에요. 누구나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이르게 되면 이제 그는 바벨론을 벗어나서 그 거룩한 땅으로 귀환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길을 가라는 말씀, 이제 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죠? 분명히 다니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환란의 끝에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오실 때 그때 네가 네 땅에 설것이다. 그런데 참 희한한게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영감있는지 몰라요. 네 땅을 your land, thy land 라 하지 않고 thy lot 이라 그랬어요. 네 몫이다. 이런 얘기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영감있단 말이죠. 우리가 네 땅을 네

뭣이다 그럴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네가 받을 상급을 얘기한 것이란걸 알수가 있죠. 땅이라면 분명히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뭣이 맡겨진 것,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12 사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새세대에, regeneration, 이 땅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서 새 피조물이 되는것, 이것도 regeneration,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을 다시 만든 다음에 중생 시켜서 그 다음에 땅도 중생시키시는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새 땅에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죠? 네 길을 가다가 네가 쉬고 그 날들의 마지막 날에 네가 네 땅에 설 것이다. 너의 뭣을 차지할 것이다. 참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죠.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 입을 열면 박해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고요. 친척들 친구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 버리고 그냥 기쁨으로 갔어요. 옛날 로렌하이츠에 지금 그린랜드라는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슈퍼마켓에서 전도를 하는데 매니저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수갑을 채울려고 왔더라구요. 아 얼마나 기쁘지 우리가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서 떠난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사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입을 열기만 하면 되요.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을 확 찢러 버려 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할 때는 그 사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무줄처럼 그래야죠, 저래야죠 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들어간 사람이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은 말씀이 꽃혔기 때문에 생각이 드러나니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아 좋은 현상이구나. 그렇잖아요? 아 좋은 약을 먹을 때 이상하게 더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약이 들어가면 벌컥 하는거예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 하지말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끝나게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율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게 저는 아침에도 기도를 했어요. 16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강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강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지 목사가 그거말고 더 할게 있나요? 목자는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만 하면 되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는 인도자입니다. 먹이는 분은 주님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먹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왕이 고백한거죠? 저는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만 하면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면 냄새가 날거 아닙니까? 아! 풀맛이 좋다. 그러면 뜯어 먹는 거예요. 허허. 목자는 인도자이지 진짜 목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만 듣는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만방으로 계속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등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율기를 강해할 때 성령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먹고 더 진리의 지식으로 풍성하며 특별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않고 하나님의 왕국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터넷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